

Single Implant

우이형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연자 약력

1979년
1988년
1993년
현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독일 튜빙겐대학교 방문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치과 보철물을 장착하는 것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결국 잠재적인 손상을 치아와 주변 조직에 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철 치료의 목표는 치아 및 인접 조직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전통적인 보철 치료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대치 및 인접 조직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정성 보철은 건강한 자연치질과 치수의 희생에 요하는 치료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패한 보철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철을 위하여는 인접건강한 자연치의 추가 희생이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고정성 보철물은 장착 후 10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대치의 보호를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는 resin bonded restoration이 있으나 이것의 성공율은 매우 낮아서 영구 보철물로서 장기간 기능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보철분야의 새로운 장을 연 임플란트는 처음 시작은 무치악에서부터 였지만 이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한 인접 자연치를 보호하고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발전된 술식으로서 일반적인 술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10년 후의 성공율도 90%이상으로서 기존 보철에 비하여 높은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공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보철에 비하여 기술율이 매우 낮았다. 가장 큰 이유는 치아의 상실과 함께 상실된 치은 조직으로 인하여 자연감있는 회복이 어려운 것이 큰 이유의 하나였다.

따라서 본 강연에서는 심미적인 단일 임플란트를 위한 지대치의 선정 및 연조직 처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